

大山 李象靖의 理主氣資說과 그 思想史的 意味

전성건*

【 차례 】

- I. 緒論
- II. 理主氣資說의 영향관계
- III. 理主氣資說의 논리구조
- IV. 理主氣資說의 사상사적 의미
- V. 結論

【 국문초록 】

퇴계의 四端七情에 대한 후대의 평가는 互發說의 타당성을 위주로 이루어졌다. 渾淪說과 分開說 가운데, 퇴계학파는 분개설에, 율곡학파는 혼륜설에 무게중심을 두고 비판과 재비판의 과정이 되풀이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비판과 재비판은 퇴계학파와 율곡학파의 학문적 입장차이 뿐만 아니라, 정치적 입장차이로까지 진행되었다. 正學의 수호라는 명목 아래 互發說과 氣發理乘一途說의 학문적 대립이 學派와 黨派의 정치적 대립물이 되고 만 것이다. 정치적 권력에서 소외된 영남 남인의 차선책은 학문적 권위를 빌어 정치적 소생의 기회를 찾는 일이었다.

17세기 퇴계학파는 葛菴을 필두로 하여 '율곡의 호발설 비판'에 대한 재비판을 통해 영남남인을 규합하여 정치적 활로를 찾으려 하였지만, 영남남인의 정계진출은 더욱 어려워지고 말았다. 게다가 18세기에는 노론 중심의 정국이 견고해지고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연구교수

영남남인을 회유하려 그들의 근거지까지 노론세력이 침투하는 상황이 본격화되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大山이다. 그는 퇴계학파의 적통으로서 퇴계학의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였는데, 특히 그가 주장한 理主氣資說은 영남남인은 물론 근기남인의 학문에도 사상사적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에 본 논문은 18세기 퇴계학파의 적통인 대산의 理主氣資說의 논리구조와 그것이 갖는 사상사적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대산의 理主氣資說 형성에 직간접적인 연관성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론되는 사상을 考索해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산의 학설이 영남남인과 근기남인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간략하게 다룰 것이다. 菴菴과 密菴을 계승하여 18세기 퇴계학파의 큰 스승으로 자리한 대산이 그들과는 구별되게 퇴계의 사단칠정론을 해석하였다는 점은, 학문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적 측면에서도 새로운 국면에 대응해야 했던 한 지식인의 고뇌가 있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주제어

리주기자설, 대산, 우담, 청대, 성호

I. 緒論

퇴계학파에게 17~18세기는 노론의 학문적이고 정치적인 압박이 본격화되는 시기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노론측은 학문적으로는 퇴계의 互發說을 주요 비판의 대상으로 삼아 퇴계학문의 純正性을 문제시하였고, 정치적으로는 영남남인을 회유하는 등 영남남인의 노론화 작업에 착수하였다.¹⁾ 이는 인조반정 이후 서인-노론으로 이어진 봉당이 정국을 주도하게

1) 鶴東書院 건립을 둘러싼 노론과 남인의 대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당대

되면서 영남남인이 더 이상 정치적 주도세력으로 나서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된 데서 기인한 바가 크다.²⁾

정치적 권력에서 소외된 영남남인들의 차선책은 퇴계의 학문적 권위를 높이는 일에 치중하는 일이었다. 이는 율곡의 퇴계학 비판에 따른 영남남인의 율곡에 대한 재비판 및 퇴계학 수호를 위한 학문적 활동이 당대 영남지역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17~18세기 영남학파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活齋 李穡(1613~1654)·葛菴 李玄逸(1627~1704)·愚潭 丁時翰(1625~1707)·密菴 李栽(1657~1730)·淸臺 權相一(1679~1759)·大山 李象靖(1711~1781)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율곡학과와의 대결구도를 만들어간 대표적인 학자는 갈암이었다. 그는 영남남인의 대표라는 정치적 입지에 걸맞게 학술적으로도 「栗谷李氏論四端七情書辨」을 썼을 만큼 율곡의 理氣心性論에 대한 비판에 적극적이었다. 갈암의 입장을 간략하게 제시하면, “리와 기는 결단코 두가지³⁾”라는 것과 “리발을 부정하면 모든 조화의 근원으로서의 리의 지위를 박탈하게 된다는 것⁴⁾”이었다. 이러한 갈암의 입장은 내용상의 차이가

노론세력이 안동을 비롯한 남인의 근거지에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작업을 줄기차게 추진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박원재, 「대산 성리설의 사상사적 문제의식과 논리구조」, 『국학연구』19, 2011, 640쪽.

2) 우인수, 「입재 정종로의 영남남인 학계내의 위상과 그의 현실대응」, 『동방한문학』 25, 2003, 109~110쪽. 인조반정 이후 간헐적으로 영남남인의 정계진출이 가능하였기는 하지만, 갈암 이후 정치적 권력에서 상당한 정도로 疏遠해졌던 것은 사실이다.

3) 李玄逸, 『葛菴集』 권18, 「讀金天休論李大柔理氣性情圖說辨」: 理氣雖不可謂相離, 然以形而上下者言之, 理與氣決是二物.

4) 李玄逸, 『葛菴集附錄』 권1, 「年譜」: 夫理雖無爲, 而實爲造化之樞紐·品彙之根柢. 若如李氏之說, 此理只是虛無空寂, 不能爲萬化之原, 而陰陽氣化縱橫顛倒, 以行其造化也, 不亦繆乎? 夫一理渾然, 貫動靜而爲之主, 故化生發育, 錯行代明, 萬端千緒, 不失條序. 若不以理爲主, 而一任氣化之爲, 則必將夏寒冬熱, 山夷川涌, 馬生牛角, 桃樹生李華, 其詭異差忒,

다소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퇴계학파의 일원들에게 수용되었고, 그들 자신의 입론의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8세기에 들어와서는 이러한 학문적 경쟁구도만으로는 퇴계학의 학문적 수호는 물론, 정치적 진로모색의 한계상황에 직면하게 될 뿐이었다. 노론의 정치적 회유와 함께 성리학적 명제의 학문적 순정성에 있어서 퇴계학설의 문제점이 하나둘 거론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남남인의 학문적 결속과 함께 정치적으로 동맹을 맺을 만한 대상이 필요하였다.⁵⁾ 이러한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갈암과 밀암의 학문을 비판적으로 계승한 대산이고, 그의 사단칠정론에 대한 해석의 기본명제가 바로 理主氣資說이다.

理主氣資說 자체에 대한 연구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 그간의 연구 성과 가운데 특징적인 사항이 있는 것⁶⁾을 일별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산의 리주기자설은 퇴계의 理發說과 율곡의 機自爾說을 비판하여

不可名狀矣.

5) 영남남인과 근기남인의 학문적이고 정치적인 결속의 연결고리가 된 인물로는 청대와 息山 李萬敷(1664~1732) 등이 대표적인데, 이들 이외에 다양한 인물과 그들의 교류양상 등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기왕의 연구로는 안병걸, 「성호 이익의 퇴계와 영남에 대한 관심-권상일과의 편지를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18, 2009; 김주부, 「식산 이만부의 학문형성과 교류양상 일고찰 - 영남 남인계 학인을 중심으로」, 『한문학보』19, 2008; 정재훈, 「식산 이만부의 학문과 『도동편』」, 『국학연구』23, 2013 등이 있다.

6) 특징적인 사항이란 본 논문의 성격을 규정하기 위해서 붙인 말이다. 대체로 대산의 사단칠정론에 대한 이해는 퇴계의 분개설과 혼륜설을 通看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기본 명제가 리주기자설이 된다는 것이다. 다만 대산의 리주기자설의 논리적 구조와 사상사적 의미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이 존재하고, 그것에 대한 또 다른 이해방식을 제시하기 위하여 기왕의 연구 성과 가운데 필자에게 유의미한 논문을 선별하였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특징적인 사항이라는 말을 붙인 것이다.

퇴계설과 율곡설을 지양시키려 하였으나, 리주기자설 자체는 대산의 의도와 상관없이 율곡설과 회통할 수 있다는 연구이다.⁷⁾ 둘째, 대산의 理氣論은 근본적으로 理氣二元論이며, 그가 제시한 理氣의 動靜과 先後 문제에 대한 해결은 程朱理學의 상반된 관점을 포괄적으로 전망한 것이고, 당대 사상계에 새로운 사유와 세계관을 모색하도록 하였다고 평가한 연구이다.⁸⁾

셋째, 대산은 퇴계학과의 理氣二元의 극단화와 율곡학과의 渾淪說의 편중에 따른 문제점을 通看의 인식방법에 입각하여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性發爲情의 명제를 통해 사단칠정의 이해를 바로잡을 수 있었다는 연구이다.⁹⁾ 마지막으로, 대산의 성리설을 理主氣資說과 渾淪而分開로 정리하면서 그의 四七理氣說은 우담과 성호의 理發一途說의 미진함을 보완하고, 갈암과 청대의 理氣說의 결함을 바로잡는 것으로 평가한 연구이다.¹⁰⁾

이상의 연구들은 나름대로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고 할 수 있다. 대산의 理氣論과 四端七情論 등의 일반적인 이해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다만, 그의 학설이 포함하고 있는 사상사적 의미, 즉 학문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의식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이 다소 아쉽다. 또한 그의 학설의 형성과정에서 생기는 영향관계를 밝혀주지 않고 있다는 점도 아쉬운 점

7) 이상익, 「대산 이상정의 리주기자론: 퇴·율 성리설과 대비하여」, 『동방학지』142, 2008, 384~387쪽.

8) 김우형, 「대산 이상정의 리기론」, 『동방학지』113, 2001, 61~63쪽.

9) 전병철, 「대산 이상정의 이기·심성론」, 『대동한문학』25, 2006, 306~308쪽.

10) 나대용, 「대산 이상정의 리주기자와 혼륜이분개」, 『동양철학연구』73, 2013, 170~171쪽.

이다. 본 논문은 이 두 가지 점을 밝힘으로써 선행 연구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고자 하였다.¹¹⁾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II장에서는 理主氣資說의 형성과정을 살펴본다. 대산은 비교적 이른 시기인 30대에 그의 학설의 기반을 다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는 그의 문제의식, 즉 퇴계의 互發說이 가진 유의미성과 설명방식을 당대 학자들에게 설득시키고, 율곡의 氣發理乘一途說에 입각한 퇴계의 사단칠정론에 대한 비판을 무마시켜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대산의 사유방식에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을 살펴볼 때, 추론해볼 수 있는 이들이 바로 旅軒 張顯光(1554~1637)과 愚潭 丁時翰이며, 그들의 사단칠정론에 대한 해석은 대산의 그것과 논리적인 친연성을 갖는다.

둘째, III장에서는 理主氣資說의 논리구조를 살펴본다. 心統性情과 함께 性發爲情은 주자학에서 매우 중요한 명제이다. 심이 성과 정을 포괄하고 있으면서, 성이 정으로 발현되는 과정에 개입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설명해주는 것이 심통성정이란 명제에 대한 개략적인 이해이고, 성이 발현하여 정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명제화한 것이 바로 성발위정이다. 여기에서는 심통성정의 이해 아래 성립된 성발위정의 대산식 이해인 리주기자설의 논리구조를 考究해본다.

셋째, IV장에서는 理主氣資說의 사상사적 의미를 살펴본다. 대산 당대에는 율곡학과 뿐만 아니라, 퇴계학과 내에서도 퇴계의 학설에 대한 異見이 분분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산의 리주기설은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에 서 정립된 것이다. 또한 그의 사단칠정론에 대한 이해방식은 영남의 퇴계

11) 제시된 선행 연구에 대한 필자의 입장은 결론에서 언급할 것이다.

학파는 물론 근기의 퇴계학파인 근기남인이었던 星湖 李瀾(1681~1763)과 順菴 安鼎福(1721~1791) 등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II. 理主氣資說의 영향관계

대산의 학문의 형성과정에 있어서는 역시 갈암과 밀암의 영향이 지대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들의 학문정신과 당파의식을 대산이 계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산의 리주기자설은 그들과는 다른 결을 지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17세기에서 18세기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갈암에서 밀암으로 이어지는 퇴계학파의 성리설의 기조는 율곡 성리학의 비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며, 이들 비판은 대체로 퇴계와 율곡의 견해가 양립될 수 없는 것이고, 율곡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데에 힘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8세기 중반에 이르면 이른바 혼론과 분개라는 두 관점의 종합으로써 사단칠정론을 이해해야 한다는 견해가 부상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향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대산이었다.¹²⁾ 그런데 대산의 사단칠정론에 대한 입장이 갈암으로부터 이어진 율곡학설의 비판적 기조와 맥을 달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퇴계의 호발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旅軒 張顯光의 사단칠정론에 대한 생각을 일별해보고, 그 다음 갈암과 논쟁을 벌였던 우담 정시한의 학설에 귀를 기울여보는 것도

12) 유명중, 「조선후기 성리학사에서 대산 이상정의 사상적 위치: 혼론설과 분개설의 통일」, 『동방학지』113, 2001.

유의미할 것으로 보인다.

여헌의 학설은 표면적으로 퇴계학파의 학자들에게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는 퇴계의 互發說의 논리적 근거인 分開說을 渾淪理發說의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¹³⁾ 그러나 이러한 그의 비판은 여헌 장현광의 經緯說- 克齋 申益愷의 初期說- 대신 이상정의 理主氣資說- 한주 이진상의 理發一途說로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¹⁴⁾ 그리고 이들의 학문적 성과는 理氣互發說에 경도되어 있던 퇴계학파의 학자들이 그들의 이론적 지평을 넓혀나가는 데에 크게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다.¹⁵⁾

七情 이외에 다른 정은 없다. 四端은 결코 칠정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다. 합해서 말한다면, 사단과 칠정은 모두 理發이다.¹⁶⁾ 發이라는 것은 動만이 發이 되는 것이 아니다. 靜 역시 發 가운데 있는 靜이다. 感만 발이 되는 것이 아니다. 寂 역시 發 가운데 있는 寂이다. 왜 그런가? 元氣가 天地가 되고 遊氣가 人物이 되는 것은 太極의 發이 아닌 것이 없기 때문이다. 無形을 따라

13) 관련 논문으로 안영상의 「대산 이상정의 혼륜·이기설의 착근에 있어서 여헌설의 영향과 그 의미」, 『유교사상연구』27, 2006이 있다. 이 논문은 여헌 장현광과 극재 신익황의 초기 渾淪理發說이 대산의 성리설에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론하고 있다. 그리고 대산의 리주기자설은 결국 퇴계가 주안점을 두었던 분개설과 여헌이 주안점을 두었던 혼륜이발설을 종합한 것으로 결론짓는다. 본 논문은 여헌과 극재의 이론이 대산의 이론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가를 실증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이고 논리적 측면에서 어떤 유사성이 있는가를 중점으로 살펴볼 것이며, 그 가운데 여헌의 학설만을 소략하게나마 다룰 것이다. 다만 극재의 경우 갈암의 설득에 의해 자신의 초기입장을 부정하게 된다는 점은 기억해두자.

14) 안영상의 「대산 이상정의 혼륜·이기설의 착근에 있어서 여헌설의 영향과 그 의미」, 『유교사상연구』27, 2006, 46~47쪽.

15) 김용현, 「여헌 장현광 성리설 연구의 쟁점과 과제」, 『한국인물사연구』13, 2010, 101~103쪽.

16) 張顯光, 『旅軒先生全書』下, 「性理說」 권4: 七情之外, 無他情也. 四端斷不出七者之區域矣. 合而言之, 四端七情皆理之發也.

有形이 되고 無爲를 따라 有爲가 되는 것이 이른바 發이 아니겠는가? 이미 천지가 되었다고 하면 천지에는 동정이 있게 된다. 이미 인물이 되었다고 하면 사람의 마음에는 寂感이 있게 되니, 이것은 理發 가운데 있는 동정이 아닐 수 없으며 性發 가운데 있는 적감이 아닐 수 없다.¹⁷⁾

여현은 사단을 칠정의 영역 안에 있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사단과 칠정은 모두 리가 발한 것이다. 사단과 칠정은 모두 仁義禮智의 四德으로 설명되는 性에 근거해야 한다. 즉 性發爲情의 명제에 따라 性이 발해서 情이 되는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의 더 심층적인 근거는 太極의 發이다. 태극의 내용이 현실화 되는 것이 發이니, 그것이 理에도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무형하고 무위한 理가 유형하고 유위한 氣로 발한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우주에 보이는 다양한 현상은 결국 태극이나 리가 발현되어 현실화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인간의 마음에도 적용되어 사람의 마음에 있는 寂感 또한 性發의 결과가 된다.

또 여현은 사단-리발, 칠정-기발이라는 퇴계의 이원적 도식은 도심과 인심의 구조와 동일하게 보는 데서 나온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주장보다는 情이 근본하고 있는 것은 모두 理이고 性이 발한 것은 모두 氣가 된다는 설이 낫다고까지 주장한다.¹⁸⁾ 이러

17) 張顯光, 『旅軒先生全書』下, 「性理說」 권5: 所謂發者, 不獨動者爲發, 靜亦發中之靜也. 不獨感者爲發, 寂亦發中之寂也. 何則? 以元氣而爲天地, 以遊氣而爲人物者, 無非太極之發也, 從無形而爲有形, 從無爲而爲有爲者, 非所謂發也? 既爲天地, 則天地有動靜, 既爲人物, 則人心有寂感. 此無非理發中之動靜, 性發中之寂感也.

18) 張顯光, 『旅軒先生全書』下, 「性理說」 권7: 其說[退溪說- 필자주]似乎祖述大舜道心人心之分也. 然而以四端純善而爲理發, 以七情有雜而爲氣發者, 不若所謂情之所本皆理, 性之所發皆氣之說, 爲不易之旨也.

한 여헌의 주장을 과도한 해석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여헌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사단과 칠정은 모두 리가 발한 결과라는 것이다.

朱子は 子思의 설을 해석하여 희로애락은 정이고 그 미발은 성이라고 말했다. 맹자는 어찌하여 칠정 이외에 사단을 말하였는가? 다만 칠정 가운데서 곧바로 본연지성을 따라 感出하여 初頭가 순선하게 된 것을 이름 붙여 사단이 된 것이다. 만약 정밀하게 궁구하고 자세하게 살펴보면, 사단은 진실로 칠정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는다.¹⁹⁾

여헌이 보기에 주자는 『중용』을 해석하면서 희로애락을 정에 배당하고, 정이 아직 발하지 않았을 때를 성이라고 한 것인데, 맹자가 칠정 가운데서 곧바로 순선하게 본연지성을 따라 감출한 것을 이름 붙여 사단이라고 말한 것이지, 칠정과는 별개의 감정이 있고, 이것을 그가 사단이라고 말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요컨대 여헌의 종지는 사단은 칠정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할 경우 渾淪理發說의 타당성이 입증되는 것이다. 이제 우담의 사단칠정론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자.

우담의 『四七辨證』은 갈암의 『栗谷李氏論四端七情書辨』을 읽고 나서 작성된 것으로, 이는 율곡이 牛溪 成渾에게 답한 편지들을 발췌하여 자신의 견해를 붙여서 변론한 글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갈암의 율곡비판의 핵심요지는 理와 氣가 결단코 2가지여야 한다는 것과, 율곡의 학설이 氣發理乘一途만을 고집한다면, 理의 主宰性은 死傷되어 理學의 근본 원칙이 무

19) 張顯光, 『旅軒先生全書』下, 「性理說」 권7: 朱子釋之曰, 喜怒哀樂情也, 其未發則性也. 孟子豈外七情而言四端乎? 特就七情中舉其直, 從本然之性感出, 初頭純善者, 目之爲四端. 苟能精究而詳認之, 則四端果不出七情之中也.

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우담은 이러한 갈암의 견해에 대해 또 다른 시각으로 퇴계의 이론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말한다.

여기에서는 먼저 천지의 조화로 논해본다. 태극의 동정의 理는 사계절을 관통하고, 사계절이 이루어지는 것은 모두 태극의 동정에 근원하니, 천지의 조화는 태극유행의 妙 아닌 것이 없다. 비록 만물이 자라나서 크고 작게 질을 이루고 형형색색을 볼 수 있는 것이 氣이지만, 역시 그것들은 生生之理에 근본하지 않는 것이 없으니, 어찌 氣發理乘一途를 말해서야 되겠는가? 무릇 理氣는 본래 先後도 없고 離合도 없다. 기가 리에 앞서는 것이 아니지만 기가 작용하는 곳을 보면 오히려 기발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리가 기에 앞서는 것은 아니지만, 리가 주재하고 유행하는 곳을 가리켜 유독 理發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가? 또 리는 무위하여 저절로 그러한 것으로 유위의 자취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비록 무위라고 말하더라도 천지와 사계절의 운행과 일월성신의 순환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조금도 어긋남이 없는 것은 이 리의 묘용이 아닌 것이 없다. 어찌 리는 무위하고 기는 유위하다는 말만을 가지고 부득불 기를 먼저 말할 수가 있다는 말인가?²⁰⁾

우담은 율곡이 비판의 주요 근거로 삼고 있는 주희의 ‘理無爲氣有爲’와 ‘氣發理乘一途’의 명제를 천지의 조화를 근거로 반박한다. 태극동정의 리가 천지와 사시를 통관하고 있는데, 이는 태극유행의 妙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표면적인 것을 가지고 이면적인 것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20) 丁時翰, 『愚潭集』 권8, 「四七辨證」: 今且以天地之化論之. 太極動靜之理, 通貫四時, 四時之成功, 皆原於太極之動靜, 則天地之化, 無非太極流行之妙也. 雖其萬物芸芸, 大小成質, 形形色色可見者氣, 而亦莫不本於生生之理, 安可以氣發理乘一途專言之耶? 夫理氣本無先後離合, 氣非先理, 而見其氣之作用處, 猶可謂之氣發, 則理非先氣, 而指其理之主宰流行處, 獨不可謂之理發乎? 且理之無爲, 自然而然, 不見其有爲之迹, 故雖曰無爲, 而天地四時之運行, 日月星辰之躡度, 亘古亘今, 無少差忒者, 莫非此理之妙用, 豈可以理無爲氣有爲爲辭而不得不先言氣也耶?

취지이다. 즉, 기발에 가려져 있는 理發의 측면을 볼 수 있다면 울곡과 같은 비판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우담은 이를 퇴계의 학설과 연관 지어 사단칠정에 대한 해석에 직접적으로 적용한다. 퇴계가 “사단은 인의예지의 성에서 발출한다.”고 한 말은 사단은 형기에 섞이지 않은 채 순수하게 발현한다는 의미이고, “칠정은 외물이 형기에 감촉되어 마음에서 움직인다.”고 한 말은 칠정은 형기에 섞여 발현한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특히 칠정의 경우도 마음속에 리가 없다고 말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이 둘 간의 상대적인 관점을 지양하고자 한다.²¹⁾

그러므로 우담은 “도심은 인심 상에서 발현하고 사단은 칠정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비록 상대시켜 설명하더라도 원래 상대하여 각자 나오는 일이란 없다.”라고 단정한다. 우담은 퇴계의 분개설이 ‘혼란한 마음’에 나아가서 사단과 칠정을 리와 기로 나누어 이원적이고 대립적인 것으로 설명한 것일 뿐이고, 혼란한 마음에서는 실제로 사단은 칠정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우담은 사단과 칠정의 설명방식을 칠정이 사단을 포함하는 ‘혼란설’을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사단과 칠정이 의미하는 바를 구분해낼 수 있다는 ‘분개설’을 퇴계의 사단칠정에 대한 정론으로 생각한다.

요컨대, 우담의 사단칠정에 대한 입장은, 사단과 칠정이 모두 外感-內應의 구조를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단은 순수한 본성에서 발출하

21) 丁時翰, 『愚潭集』 권7, 「四七辨證」: 第退溪之以四端爲發於仁義禮智之性者所指而言者; 以其出於性之粹然在中, 不雜乎形氣者而爲言, 初不言無感而自發也. 以七情爲外物之觸其形而動於中者所指而言者, 以其出於性在氣質, 易感形氣者而爲言, 亦非謂中無是理也.

는 것이고, 칠정은 형기의 매개로 인해 발출하는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리가 주재하는 현상을 포착하는 데에 사단의 의미가 있는 것이며, 이를 理氣論의 명제로 환언하면, '理主氣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²²⁾

이상의 결론을 좀 더 일반화된 표현으로 말할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우담의 '리주기보'는 외감-내응의 구조를 이른바 '理發氣隨'의 측면에서 이해한 것이고, 이는 대산의 사단칠정에 대한 설명방식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理主氣資'의 입장과 유사함을 발견할 수가 있다.²³⁾

Ⅲ. 理主氣資說의 논리구조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17~18세기에 행해진 퇴계학파의 사단칠정론에 대한 기본입장은 分開說에 입각하여 互發說의 타당성을 밝히는 데에

22) 丁時翰, 『愚潭集』 권9, 「壬午錄」: 朱子雖在氣中, 理自理氣自氣, 不相夾雜之謂性云者, 以其理氣妙合之中, 理常爲主, 氣常爲輔. 雖在氣中, 不囿於氣, 命氣而不命於氣之云爾, 非以爲理氣各在一處而不相妙合也; 『愚潭集』 권4, 「答李翼升別紙甲申」: 鄙說亦謂妙合之中, 理常爲主, 氣常爲輔. 雖在氣中, 不囿於氣云爾, 則非敢認爲一物而無所分別也.

23) 김우형은 대산이 七包四의 관점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담과의 상통성이 있다고 하였고, 혼륜과 분개의 관점을 종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담과의 차이성이 생긴다고 하였다. 즉 칠포사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상통하는 측면이 있지만, 우담이 여전히 분개설의 관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에 비해, 대산은 분개설과 혼륜설을 종합하는 데에 무게중심으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김우형, 「우담 성리학의 특징과 대산 이상정에 미친 영향」, 『한국철학논집』26, 2009, 210~211쪽.

있었다. 그러므로 학계에서는 당대 퇴계학파의 율곡학 비판을 크게 우담 정시한과 성호 이익 등에 의한 율곡학 비판, 갈암 이현일과 밀암 이재 및 청대 권상일 등에 의한 율곡학 비판 두 부류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흐름을 종합하는 것이 바로 대산 이상정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²⁴⁾

대산의 理主氣資說은 그의 理氣論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그의 理氣論에 대한 기본 입장은 다시 太極과 陰陽의 관계에 대한 인식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太極圖說」에 대한 그의 입장을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율곡의 학설 및 분개설에 편중되어 있는 퇴계학파의 학설에 대한 비판이 어떠한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자.

대개 理가 있는 뒤에야 物이 있게 되니, 만약 리가 없다면 물은 참으로 있게 만드는 근원이 없게 되므로, 그 근원을 미루어 본다면 마땅히 리가 먼저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리는 공중에 매달려 홀로 존재하는 사물이 아니라, 반드시 기를 터전과 도구로 삼아 그 안에 포함되고 실리니, 또 애초 말할 만한 선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리가 기보다 앞선다는 말은 또한 한 사물의 생성에 근거하여 부여받는 초기를 논한 것일 뿐입니다. 사실 사물이 아직 생성되기 전에는 리도 천지 公共의 기에 타고 있어 애초 간격과 분리됨이 없으며, 기가 없는 이전의 시점에 자른 듯이 홀로 존재하다가 이 사물이 생겨나고, 이 사물이 생겨난 뒤에 비로소 그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예컨대 태극이 동하여 양을 낳는다는 말은 참으로 리가 기를 낳는 것이니, 리가 먼저이고 기가 나중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선 끊어서 양을 낳는 곳에서부터 설명한 것일 뿐입니다. 그 근본을 궁구하면 양을 낳기 이전은 필경 음이고, 태극은 참으로 이 음의 틀을 타서 양을 낳는 근본이 될 뿐입니다.²⁵⁾

24) 나대용, 「대산 이상정의 리주기자과 혼륜이분개」, 『동양철학연구』73, 2013, 172쪽.

25) 李象靖, 『大山集』 권39, 「理氣先後說」: 蓋有是理而後方有是物, 若無是理, 則是物固無從

대산은 먼저 만물의 근원의 입장에서 理先氣後를 언급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理가 공중에 매달려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氣라는 터전[田地]과 도구[材具]를 통해서만 理가 실현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렇게 理선기후를 언급한 것도 사물의 생성초기를 말로 표현한 것일 뿐이지, 현재적 사실을 표현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유학에서 만물의 始原의 역할을 하는 太極에 대해 설명하는 그림, 즉 『태극도설』 첫머리에 등장하는 太極生陽 또한 우주의 근원과 현재적 세계의 관계를 ‘끊어서’ 양을 낳는 곳부터 설명한 것이므로, 태극과 음양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理氣不相離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대산의 논리는 율곡의 그것과 흡사하다. 그러나 대산은 그렇다고 하여 理發을 부정하고 氣發로 나아가지 않는다.

근래 理氣論을 말하는 사람들은 不相離의 측면을 위주로 생각함으로 理를 말라비틀어진 고목처럼 죽은 것으로 인식하고, “동정과 개벽 모두는 기의 기틀이 저절로 그러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는 것이 잘못이라고 하여 또 다시 리와 기를 상대적인 것으로 보고 각각 스스로 發用한다고 하면, 이것은 오류를 바로 잡으려다 더 심한 오류에 빠지는 꼴이니, 이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²⁶⁾

而有焉，故推原其本，則當以理先者言。然理非懸空獨立之物，必以氣爲田地材具，而貯載於其中，則又初無先後之可言也。然則其曰理先於氣者，亦據此一物之生而論其賦予之初耳。其實此物未生之前，此理又乘在天地公共之氣，初無間隔離絕，非截然獨立於無氣之前而以生乎此物，及待此物之生而方寓於其中也。如曰太極動而生陽，固是理生氣，理先而氣後，然此亦姑且截從生陽處說起耳。究其本則生陽以前，畢竟是陰，太極固乘此陰機而爲生陽之本耳。

26) 李象靖, 『大山集』 권6, 「答權清臺」: 近世爲理氣之說者, 其主於不相離, 則殆認理爲枯槁

대산은 花潭 徐敬德이 주장하고 율곡이 계승했던 “기가 스스로 그 자신의 원인성을 갖는다.[氣機之自爾]”는 학설을 비판하며 자신의 논의를 전개해 나간다. 즉 기가 그 자체로 운동의 원인을 갖게 되면, 더 이상 리는 원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리는 고목처럼 말라죽어버린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오류를 바로잡고자 하여 리와 기를 완전히 분리하고 서로 상대적인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 역시 오류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고 대산은 생각하였다. 예컨대 淸臺 權相一과 같이 리와 기가 시간적 간격을 다르게 하고 서로 발출한다는 互發說²⁷⁾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내가 퇴계 선생의 학설을 살펴보니, 혼륜으로 말한 것은 리와 기가 서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미발 상태에서는 성이 되고 이발 상태에서는 정이 된다는 것이었다. 칠정을 말하면 사단은 그 가운데 있다. 분개로 말하는 것은 성에 본연과 기질의 차이가 있어서 그 발출하는 것을 보면 所主와 所從의 구분은 드러난다는 것이다.²⁸⁾

대산에게 혼륜이란 것은 미발 상태에 있는 성이 이발 상태의 정으로 드러나는 ‘性發爲情’의 명제를 말하는 것이다. 즉 혼륜은 감정발현의 전체

死物，凡動靜闔闢，皆氣機之自爾，固失之遠矣。而病其爲此，則又若以理爲與氣相對，而各自發用，恐是矯枉過直，是亦枉而已矣。

27) 權相一, 『淸臺集』 권8, 『答李景文』: 朱子曰動而生陽只是理, 靜而生陰只是理. 退溪答鄭子中書, 引朱子理有動靜, 氣有動靜之語, 而其下理動則氣隨而生, 氣動則理隨而顯, 濂溪之太極動而生陽, 是言理動而氣生也云云. 況無情意, 無造作, 是理之體, 隨遇而發見, 是理之用, 爲晚年定論耶? 動而生陽, 既是理動, 則此箇動靜, 豈可專歸於氣而別作他動靜耶?

28) 李象靖, 『大山集』, 권20, 『答李希道甲子』: 竊觀李先生說渾淪處, 就理氣相成之中, 以未發爲性, 已發爲情. 言七而四在其中; 說分開處, 就性有本然氣質之異, 見其所發, 有所主所從之分.

구조를 설명하는 것인데, 이 때는 칠정이 비록 본연지성에서 발현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性發’이나 ‘理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²⁹⁾ 결국 대산이 언급하는 호발의 의미를 퇴계의 정론으로 인정되는 다음의 두 명제로 말한다면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理發氣隨之는 리가 기 없이 먼저 발하고 난 뒤에 기가 그 뒤를 따르다는 의미가 아니라, 리와 기가 함께 하면서 리가 위주가 되는 것이 사단이 된다는 것이고, 氣發理乘之는 기가 먼저 발하고 난 뒤에 그 뒤에 리가 탄다는 의미가 아니라, 리와 기가 함께 하면서 기가 위주가 되는 것이 칠정이 된다는 것이다.

사단과 칠정의 분개와 혼륜에 대한 입장은 대산이 주장하는 ‘理主氣資’라는 명제에 의해 뒷받침 된다. 즉 리란 동정의 묘로써 위주[主]가 되고, 기란 동정의 기틀로써 재료[資]가 되는 것이다.³⁰⁾ 다시 말하면, 리는 기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기는 리의 재료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리와 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대산은 우담과 여현 등의 사단칠정론에 대한 이론과 유사한 측면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理氣論의 기본 구조를 나타내는 理主氣

29) 李象靖, 『大山集』, 권20, 「答李希道甲子」: 蓋不分理氣渾淪而言, 則七情之中四端包攝在裏. 此時何嘗言七情屬於氣哉? 惟與四端對舉, 然後有主理主氣之分. 今以七情爲屬於氣則已, 與四端屬理者對待, 而以中節者爲不異於四端, 則恐於分析處有未精也.

30) 李象靖, 『大山集』, 권7, 「重答李仲久別紙」: 蓋聞理者所主以動靜之妙也; 氣者所資以動靜之機也. 故主理而言, 則曰理涵動靜【以本體言.】; 曰理有動靜.【以流行言.】主氣而言, 則曰動靜者氣也; 曰動靜者所乘之機. 如此平說, 方可並行而不悖; 李象靖, 『大山集』, 권6, 「答權清臺【相一〇甲子.】」: 蓋理之與氣, 本相須以爲動, 相待以爲靜, 動靜交資, 體用相循. 然理者所主以動靜之妙也; 氣者所資以動靜之具也. 故據理而統言, 則動靜者因此理之流行也. 就其合而析言之, 則其或動或靜者, 卽陰陽氣機之往來, 而乘載其上. 主張發揮之妙, 則太極之爲也, 故朱子於此, 分而言之, 以明理氣道器之別.

補[愚潭說]와 理主氣資[大山說]는 공히 ‘性發爲情’의 명제를 확보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이고, 渾淪理發[旅軒]은 이러한 이론적 기초 위에서 理發氣隨의 일원적 토대를 공통적으로 마련해낸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는 葛菴을 비롯한 퇴계학파의 학자들이 分開說을 강조하여 율곡학파와의 대결구도를 극대화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퇴계학파를 결속하고 율곡학파의 학문적 비판을 무마시키려는 의도에서 생겨난 것이 아닌가 한다.

IV. 理主氣資說의 사상사적 의미

대산은 평생 퇴계를 흠모하여 학문에 힘쓰는 한편, 영남의 학풍을一新시키려고 하였고, 『理氣彙編』·『約中錄』·『退溪書節要』 등을 비롯한 방대한 저술을 남겼다. 그러나 그의 서간문과 『大山日記』³¹⁾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업적, 즉 經世의 측면에서는 당대 학자들의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것은 아마도 성리학에 대한 침잠과 자기수양에 매진했기 때문이 아니까 생각된다.

인재를 수습하는 것도 왕도정치의 시급한 일이다. 더구나 영남은 인재가 배출되는 고장이고 유학을 숭상하는 옛 고장이므로, 반드시 은거하는 훌륭한 선비가 있을 터인데, 등용된 자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조정

31) 『대산일기』는 이른바 曆上日記의 유형으로 해당 날짜 아래 그 날 있었던 주요 사건을 간략하게 메모해둔 기록을 기재해 놓은 것이다. 『대산일기』에 대해서는 「대산 이상정의 학문공동체 형성과 그 확대-대산일기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69, 2014 참조.

의 수치이다. 예컨대, 李象靖과 같은 이는 문학·재능·품행이 탁월하다고 하는데, 卿들은 들어 알고 있는가?³²⁾

정조는 대산에 대해 문학과 재능 그리고 품행이 탁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갑숙환국 당시 관작을 박탈당한 갈암 이현일의 외증손이라는 이유로 관직에 제수되었다가 취소되기도 하는 등, 그의 품행과 재능과는 별개로 입사하여 정치적 명운을 걸어볼 수가 없는 처지였다.³³⁾

대산의 사회활동은 정치적 영역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그러므로 대산은 四書 및 성리서 일변도의 공부를 지향하였으며 經世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18세기 중후반 서울권역과 근기지역에서 청나라를 통해 서양문물을 받아들이며 변화를 모색하는 상황과는 사뭇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그는 향촌사회에서의 강학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냄으로써 퇴계학문의 정수를 고수하였고, 퇴계학파의 결속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학설의 사상사적 의미를 고구해보기 위해서는 역시 퇴계학설 가운데 핵심이 되었던 사단칠정론의 해석 등에서 그의 위상을 생각해 보는 것도 일리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四七과 理氣의 설은 기호학과는 물론이고, 吾黨 안에서도 혹 길으로는 배척하는 듯하지만 속으로는 돕는 자가 있으며, 또한 가운데 서서 둘 다 옳다고 하는 자도 있습니다. 비록 알고 깊음이 같지는 않지만 모두 正道에 누를 끼치는 것입니다.³⁴⁾

32) 『정조실록』 권10, 4년 9월 25일 경자.

33) 『大山先生實記』 권1, 「年譜」.

34) 李象靖, 『大山集』, 권6, 「答權江左」: 四七理氣之說, 毋論圻湖一派, 吾黨之中, 或有陽擠而陰右者, 亦有中立而兩是者, 雖淺深不齊, 而均之爲正道之累矣.

四端七情論과 그것의 이론적 기반인 理氣論에 대한 이해방식은 퇴계학과 울곡학과의 대결구도가 여실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대산에게 리기론과 사단칠정론에 대한 定論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울곡학과의 퇴계설 비판에 대한 결연한 대응이 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대산은 퇴계학과 내부에서 발생한 학문적 분열은 그 이상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즉 그러한 학문적 분열로 인해 나타나는 당파적 분열이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퇴계 이래 정립된 正道를 해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의 理主氣資說은 사단과 칠정에 대한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주요한 지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학설의 사상사적 의미도 살펴볼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한 것이다. 더불어 그의 이러한 입장은 영남학과 뿐만 아니라, 근기남인인 성호학과에게도 일정정도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성호와 순암 안정복 등이다.

星湖는 30대 중반에 『四七新編』을 저술하여 퇴계학에 입문한다. 『사칠신편』의 대의는 사단과 칠정을 각각 형기를 매개하지 않는 理發과 형기를 매개로 한 리발로 상대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성호의 이러한 설명 방식은 사단과 칠정을 각각 기발과 리발로 상대화하여 설명하는 일반적 방식에서 벗어나 사단과 칠정 모두 理發一途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나아간 것이다.

사단과 칠정 가운데 어느 것이 리발이 아니겠는가? 나누어지는 연유를 말하면 다음과 같다. 외부 사물에 감할 때 이 리가 곧 응하여 처음부터 형기의 매개가 없는 것을 사단이라고 한다. 외부 사물이 형기를 촉발시킬 때 형기가 매개되고 여기에 리가 응하는 것을 칠정이라고 한다.³⁵⁾

35) 李瀾, 『四七新編』「讀李栗谷書記疑」: 四端七情, 孰非理發? 以其緣由之分言, 則外物感而

사단과 칠정이 발현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외감-내용의 구조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만,³⁶⁾ 형기의 매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사단과 칠정이 구분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특징적인 것은 역시 칠정을 리발로 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성이 발현하여 정이 된다.”[性發爲情]는 성리학의 핵심 명제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사단과 칠정을 설명해내는 방식이다.

모든 감정은 본성의 발현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과 칠정을 리발로 설명해낼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묘맥에 구별이 있기 때문에 사단과 칠정을 구별하여 설명할 수도 있게 된다. 본성의 단서가 칠정을 관통한다는 말과 칠정도 선하다는 이름이 생긴 것은 리가 위주가 되는 상태로 설명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理主氣地’라는 성호의 理氣論에 대한 기본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³⁷⁾

그러나 성호의 『사칠신편』은 理氣不相離의 원칙을 벗어날 소지가 다분히 존재하는 위험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외감-내용의 구조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사단을 형기의 매개가 없이 이루어지는 리발로 정의할 경우, 이는 리기불상리의 원칙을 벗어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후 성호는 「重跋」을 완성시키고 외감-내용의 전체과정을 ‘理發’이 아닌 ‘理發氣隨’로 설정하고 이를 만년까지 고수하게 되었던 것이다.³⁸⁾

此理便應，初無形氣之媒者謂之四端；外物觸於形氣，形氣爲媒而理於是應者謂之七情。

- 36) 李漢, 『四七新編』「七情便是人心」: 夫感物而動, 四七皆然. 感者, 物來感我也. 【程子說】動字與『中庸』發字無異. 【朱子說】物, 外物也; 性, 吾性也; 形氣, 吾形氣也. 自外來感者謂之感也; 自吾動者謂之發也.
- 37) 李漢, 『四七新編』「七情橫貫四端第六」: 七情亦理發, 無理做出來不得. 但爲苗脈有別, 故氣發之名始起. 然性之端, 常貫於七者之中, 故理乘之名始起. 理雖在中, 氣爲田地, 而易流於惡, 故有善有不善之名始起. 然理乘之爲主, 則便是四端之流行, 故七情亦善之名始起.
- 38) 李漢, 『星湖集』 권17, 「答李汝謙」: 心之感應, 只有理發氣隨一路而已.; 『星湖集』 권17, 「答愼耳老」: 來論云四端發處所乘之氣, 是知覺之氣; 七情氣發, 是形氣之氣, 兩氣字所主

성호에 의해 마련된 ‘리발기수’라는 명제는 河濱 愼後聃의 조언으로 확신을 갖게 되어 자신의 학설로 삼은 것으로, 외감-내응의 구조적 맥락을 벗어나지 않는 한편 理氣不相離의 원칙을 어기지도 않으면서 자신이 줄곧 견지해왔던 리발을 설명하는 데에 적합한 것이었다. 즉 ‘理發氣隨’의 ‘氣’가 사단인 경우 ‘心氣’가 되고 칠정은 ‘身氣’가 된다는 설명으로, 리발기수는 사단과 칠정이 모두 같지만 칠정이 발현할 때에는 ‘심기’ 위에 하나의 묘맥이 더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신기’라는 것이다.

그런데 성호의 사유가 발전하는 데에는 영남남인인 청대 권상일과의 사단칠정에 대한 논의가 한몫을 하였다. 그러나 청대의 경우 사단과 칠정이 理先氣後나 氣先理後와 같은 실질적 호발설이 성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반면, 성호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러한 성호의 견해와 유사한 이가 바로 대산 이상정이다. 대산 역시 당대 청대의 견해가 주자학의 본지에 어긋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³⁹⁾

성호와 대산의 학문적 연관성은 앞서 언급한 여헌 장현광과 극재 신익황 그리고 우담 정시한 등에게서 보이는 理氣論과 四端七情論 등에 대한 설명방식 및 그들 상호간의 학문적 유대관계에서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문적 유대관계라는 말은 학문의 직접적 授受관계뿐만 아니라 간

本異. 而自退溪理氣相須之說, 未免混淪, 此段見得卓然, 深所欽歎. 又以鄙說爲同歸, 抑其未察矣. 灑所主張分界, 專在乎此, 其曰理發氣隨, 四七同然. 若七情之氣發, 則於理發氣隨上更有一層苗脈者是也. 這氣也, 是形氣也. 與理發氣隨之氣不同, 謂理發氣隨之知覺, 因形氣而發也. 近有答人書云氣有大小, 形氣之氣屬之身, 氣隨之氣屬之心, 形大而心小也, 比前加密. 願更入思議焉. 退溪理發氣隨氣發理乘二句, 本合活看.

39) 청대 권상일의 시간적 호발설에 대해서는 안영상, 「퇴계학과 내 호발설의 이해에 대한 일고찰-성호·청대·대산의 논쟁 비교를 통하여」, 『퇴계학보』115, 2004, 141~149쪽 참조.

접적 영향관계, 즉 각각의 인물과 사상에 대한 褒貶의 입장에서 바라본 영향관계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V. 結論

퇴계의 분개설은 퇴계 당대는 물론 사후에도 퇴계학과 내외로 문제가 되었던 학술담론이 되었다. 이는 사단과 칠정을 리와 기로 구분하여 해명하는 설명방식이지만, 理氣不相離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는 것이었다. 갈암과 밀암은 분개설을 중심으로 퇴계설을 고수하였던 반면, 대산은 불상리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 선에서 퇴계의 사단칠정론을 설명해내려고 하였다. 이는 당대 다양한 관점으로 나타나는 퇴계의 사단칠정론의 변용 내지 변주가 퇴계학과의 학문적 결속뿐만 아니라, 정치적 연대까지도 무너뜨리는 것으로 인식한 대산의 사유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성호의 『四七新編』은 퇴계의 호발설에 입각하여 율곡의 퇴계학 비판에 대해 재비판의 성격을 갖는 저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칠신편』의 理發一途는 리발이 형기의 매개이 없이 진행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현실에서의 감정의 운용에 문제가 되는 것이었다. 이후 영남남인 및 식산과 하빈 등과의 교류를 통해 현실에서의 감정의 운용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또 율곡의 비판의식을 어느 정도 수용한 형태의 理發氣隨의 명제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큰 틀에서 볼 때 퇴계의 사단칠정론에 대한 이해가 영남남인과 근기남인 모두에게 공유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대산 사후 그의 학설은 다소간의 이견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른바 理發氣隨一途說의 입장에서 확산되어 갔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寒洲 李震相이 사단과 칠정이 모두 理發이라고 한 리발기수일도설은 기본적으로 대산의 논리를 근거로 한 것이다. 한주는 대산을 평가하면서 “대산은 퇴계의 계통을 계승하면서 특별히 혼륜의 뜻을 강조하여 양쪽으로 분열되는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하였다. 이 두 현인이 무슨 이유로 계승해 내려오는 중지에 다른 논리를 세웠겠는가? 시대에 따라 그 중심을 취하는데 이와 같이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⁴⁰⁾라고 하였다.

이처럼 대산의 理主氣資說은 주자학의 性發爲情이라는 명제를 자신의 입장에 따라 발전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서론에서 제시했던 기왕의 연구 성과에 대한 본 논문의 입장을 정리함으로써 본 논문을 매듭짓고자 한다. 첫째, 퇴계의 理發說과 율곡의 機自爾說을 비판하며 내세운 대산의 理主氣資說은 대산의 의도와 상관없이 율곡의 학설과 회통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性發爲情의 입장에서라면 그러한 주장도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산의 理主氣資說의 기본 입장에서 설명하는 퇴계의 理發說은 퇴계의 體用論의 관점에서 제시된 것이어서 율곡의 학설과는 차이가 난다.

둘째, 대산의 理氣論은 理氣二元論이고, 그가 제시한 理氣의 動靜과 先後 문제에 대한 해결은 程朱理學의 상반된 관점을 모두 포괄적으로 전망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대산의 理氣論은 형이상학적 측면 즉, 太極에서 陰

40) 李震相, 『寒洲集』 권7, 「答沈釋文」; 大山以退老之譜承, 而特拈渾淪之旨, 以抹它歧說之差. 是兩賢者亦何嘗故爲立異於相傳宗旨? 而隨時取中之道, 不得不如是也. 蓋嘗論之, 理者所主以動靜之妙也, 氣者所資以動靜之具也, 則動是太極之動, 靜是太極之靜, 而是理動靜不可謂陰陽動靜也, 明矣.

陽이 생긴다는 점에서 볼 때는 理氣二元論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형이하학적 측면, 즉 性發爲情의 과정에서 볼 때는 理一元論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또 程朱理學의 상반된 관점을 모두 포괄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해석 또한 『理氣彙編』의 저술을 통해 이해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상반된 관점을 모두 포괄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것도 의심스러운 측면이 존재한다.

셋째, 퇴계학파의 理氣二元의 극단화와 율곡학파의 渾淪說의 편중에 따른 문제점을 通看의 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으며, 性發爲情의 명제를 통해 사단칠정의 이해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하지만, “18세기라는 역사적 흐름의 외적 자극과 당대의 학문풍토”⁴¹⁾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점이 아쉽다.

넷째, 대산의 성리설을 理主氣資說과 渾淪而分開로 정리하면서 그의 四七理氣說이 우담과 성호의 理發一途說의 미진함을 보완하고, 갈암과 청대의 理氣說의 결함을 바로잡는 것이었다는 주장이다. 우담의 경우 理主氣輔라는 명제가 보여주듯이 理發一途라고 할 수 없으며, 성호의 경우는 『四七新編』에서는 理發一途라고 할 수 있지만, 「重跋」에서는 理發氣隨의 입장, 즉 理主氣地의 기본입장인 形氣의 매개를 통한 理發로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理發一途라고 말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된다.

41) 전병철, 「대산 이상정의 이기·심성론」, 『대동한문학』25, 2006, 307쪽.

참고문헌

『葛菴集』

『大山集』

『大山先生實記』

『四七新編』

『星湖集』

『愚潭集』

『旅軒先生全書』

『淸臺集』

『寒洲集』

김경호, 「대산 이상정의 율곡 비판과 퇴계학의 옹호」, 『율곡사상연구』16, 2008, 67-99쪽.

김경호, 「갈암 이현일과 우담 정시한의 율곡사칠론 비판」, 『율곡사상연구』19, 2009, 111-162쪽.

김낙진, 「지각설을 중심으로 본 한주 이진상의 성리학」, 『동양고전연구』36, 2009, 229-264쪽.

김명자, 「대산 이상정(1711~1781)의 학문공동체 형성과 그 확대-『대산일기』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69, 2014, 203-232쪽.

김용현, 「여헌 장현광 성리설 연구의 쟁점과 과제」, 『한국인물사연구』13, 2010, 75-110쪽.

김우형, 「대산 이상정의 리기론」, 『동방학지』113, 2001, 27-66쪽.

김우형, 「우담 성리학의 특징과 대산 이상정에 미친 영향」, 『한국철학논집』26, 2009, 185-213쪽.

김주부, 「식산 이만부의 학문형성과 교유양상 일고찰-영남 남인계 학인을 중심으로」, 『한문학보』19, 2008, 375-429쪽.

- 나대용, 「대산 이상정의 리주기와 혼륜이분개」, 『동양철학연구』73, 2013, 169-199쪽.
- 박원재, 「대산 성리설의 사상사적 문제의식과 논리구조」, 『국학연구』19, 2011, 639-664쪽.
- 안병걸, 「성호 이익의 퇴계와 영남에 대한 관심-권상일과의 편지를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18, 2009, 409-446쪽.
- 안영상, 「퇴계학과 내 호발설의 이해에 대한 일고찰-성호·청대·대산의 논쟁 비교를 통하여」, 『퇴계학보』115, 2004, 125-166쪽.
- 안영상, 「대산 이상정의 혼륜·리발설의 착근에 있어서 여현설의 영향과 그 의미」, 『유교사상연구』27, 2006, 45-80쪽.
- 이상익, 「대산 이상정의 리주기자론: 퇴·율 성리설과 대비하여」, 『동방학지』142, 2008, 353-389쪽.
- 우인수, 「입재 정종로의 영남남인 학계내의 위상과 그의 현실대응」, 『동방한문학』25, 2003, 109-132쪽.
- 유명중, 「조선후기 성리학사에서 대산 이상정의 사상적 위치: 혼륜과 분개설의 통일」, 『동방학지』113, 2001, 1-26쪽.
- 전병철, 「『만수록』에 드러난 대산 이상정의 학문 토대」, 『퇴계학논집』9, 2011, 35-68쪽.
- 전병철, 「대산 이상정의 이기·심성론」, 『대동한문학』25, 2006, 275-312쪽.
- 전성건, 「17~18세기 퇴계학파의 율곡학파에 대한 대응의식과 사상사적 지평-성호와 대산의 사단철정론을 중심으로」, 『태동고전연구』33, 2014, 59-82쪽.
- 정재훈, 「식산 이만부의 학문과 『도동편』」, 『국학연구』23, 2013, 107-148쪽.

Abstract

On Daesan's Theory of Principle and Material Force in the History of Thought

Jeon, Sung-Kun

Daesan's position on the four-seven debate between T'oegye and Yulgok school is not only built on the T'oegye's but also reflect Yulgok's to some degree. In this regard, his theory of principle and material force, so-called liju-kija is has uniqueness in the history of thought in 17~18th century.

The key point is how to interpret T'oegye's mutual issuance of principle and material force. The main stream was attached to the aspect of dissociating the two emotion which are moral sense and physiological sense like theory of Cheongdae. By the way, Daesan made an effort to synthesize each other's differences, and both Woodam and Seongho have a little different and analogous role.

Most important is that Daesan tried to negotiate T'oegye and Yulgok school in the history of thought. And his trial is to bind T'oegye school when T'oegye school was going to be cajoled by Yulgok school, and to expand T'oegye school to the Sungho school in the academic and political aspects.

Key Word

Liju-Kija, Daesan, Woodam, Cheongdae, Seongho

▪ 논문투고일 : 2016.1.15. 심사완료일 : 2016.2.5. 게재결정일 : 2016.2.12.